

일본의 발렌타인데이

일본 초콜릿 시장의 최신 트렌드

일본 열도에 초콜릿 붐이 일면서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초콜릿 매장은 초콜릿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며 호황을 누렸다. 특히 선물하기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갖가지 아이디어 기획 상품이 눈길을 끌었다. 일본 발렌타인데이를 수놓은 초콜릿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모았다.

글 · 박소희 기자 | 사진 · 토미키미와(富木美和)

... f r o m J a p a n ...



1. 플라스틱 하트 상자 안에 초콜릿을 포장했다. 개당 1,000엔. BABBI.
2. 프랑스 유명 쇼콜라티에가 화과자의 소재를 사용해 만든 초콜릿. 일본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 PONTO.
3. 긴자에 있는 마초야 백화점에서 행복의 돼지 라는 주제로 다양한 돼지 모양 초콜릿을 판매해 관심을 모았다.
4. 지금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벨기에 초콜릿. PIERRE MARCOLINI.
5. 선물용품으로 딱 어울리도록 초콜릿과 양과자를 내놓은 HENRI CHARPENTIER.

나날이 커져가는 일본 초콜릿 시장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발렌타인데이. 소재의 고급화에 맞춰 다양한 포장과 이벤트 등을 마련해 초콜릿 매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즐겁게 했다. 유명 쇼콜라티에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내 유명 백화점은 시식코너와 함께 각종 이벤트가 열려 매일 모여드는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올해는 동양적 이미지를 가미한 초콜릿이 대거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의 유명 초콜릿을 일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일본 초콜릿 시장이 커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의 뜻을 담은 초콜릿 뿐만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리(義理) 초콜릿', 최근에는 자신을 위해 초콜릿을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발렌타인데이는 일본 제과업체의 가장 큰 특수절로 자리잡고 있다. ㉞

